

나무에 길을 묻다

심은하 Sim Eun Ha

NEO Art

25.04.08 ~ 25.05.11 N1, 2관

심은하

Sim Eun Ha

“

다소 비싼 대신 이미 반이 그려져 내게 오는 두터운 도화지(나무)에
나머지 반을 그려내는 작업을 수년째 이어오고 있다.
다 된 밥에 찢 완두콩 없는 격으로 어쩌면 거저먹는 나무와의 공동작업인 셈이다.

그러나, 나무가 하는 말은 3無로 인간의 그것과 달리 어법, 의도
그리고 정답이 없어서 시공간을 초월한 자연의 메시지에 대응하여 그려내는 작업은
흥분과 함께 인고를 동반하는 벅찬 과정이 아닐 수 없다.

상처 없이 단정히 오면 상상으로 스토리를 만들어 유려하게 하고,
터지고 굵아진 상처는 꽃처럼 드러내면서 어떤 것이든 괜찮고 어떤 것이든 특별할 수 있음을 말한다.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목리의 흐름에 나의 기운과 정신을 연결하여 재구성하거나
혹은 내재된 조형언어로 귀결시켜 큰 덩어리로 표현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는 표층적으로는 객체에 대한 순수 지향 의식과 시각적 어우러짐을 향하지만,
심층적으로 주체의 심리적 치유와 타자와의 공감을 통한 큰 연결을 의미하고 있다.

미술사 조로 치면 내재된 감정과 에너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실존의 이유를 정당화하고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추상표현주의에 가깝지만 특이하게도 나는 타자 혹은 사회를 의미하는
'나무'라는 매체를 두고 그것과의 공감을 시작으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구조를 띠고 있다.

나무는 의자나 오디오처럼 본질이 명확히 규정된 물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고가 결여된 또 다른 형상의 우리 자신일 수 있으며, 죽어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나무만의 언어를 통해 나는 아이러니하게도 우주로 향하는 길을 찾는다.

나의 작업은 예술로 비치지만 참선에 가깝고, 살아가는 방법이지만 죽어가는 방법이기도 하며,

”

언어구조 너머에서 사회와 소통하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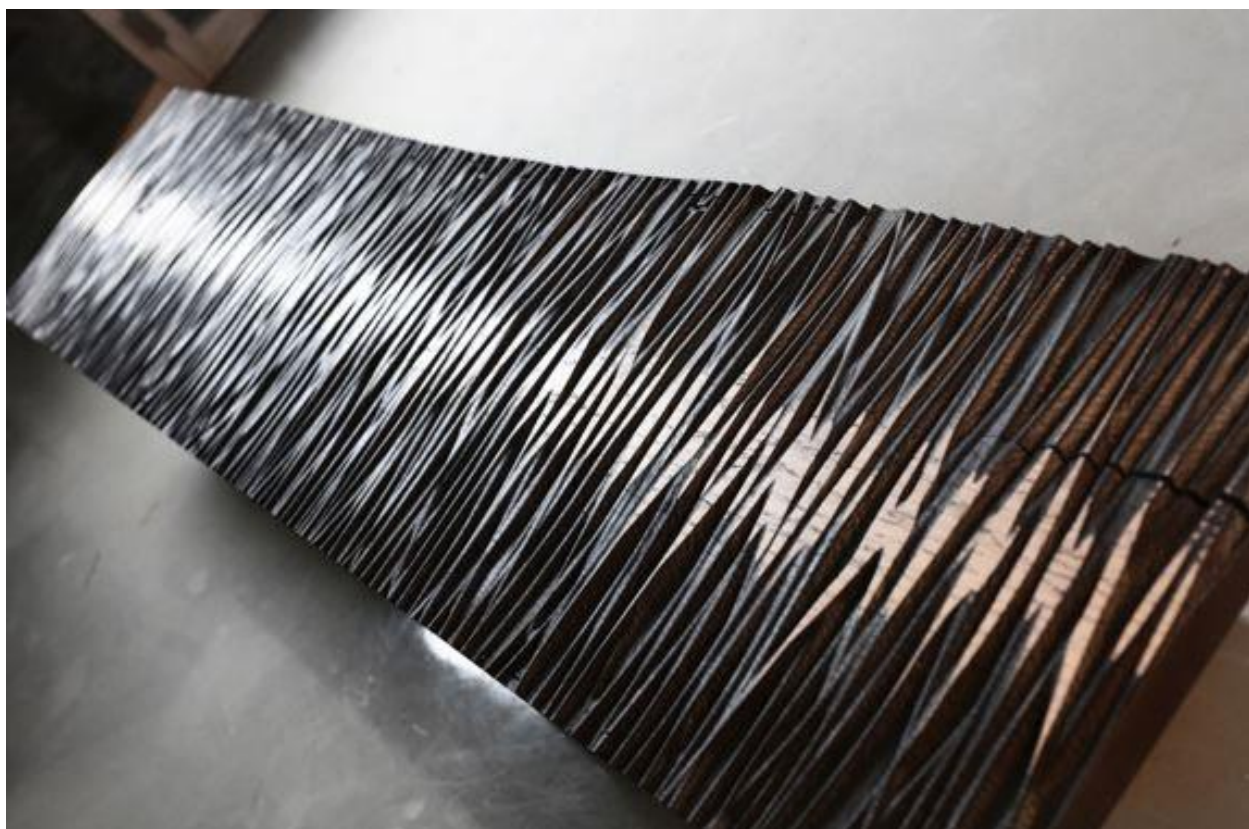
001. 一(일)과 多(다) 사이의 파레이돌리아

2440x640x55mm,
walnut, 2024



002. 微視 (미시)의 우주

2600x530x53mm,
walnut, 2024



003. 자작나무숲에 비

2450x500x47mm,
walnut, 2024



004. 저항과 저항

2440x570x50mm,
walnut, 2024



008. 궤도를 벗어난 일부, 전체를 바꾸다

2450x400x50mm,
walnut, 2022



009. 당신이 운명이라 부르는 실체

1400x590x50mm,
walnut, 2024



011. 하얀본질, 검은형식

1700x350x50mm,
Oak,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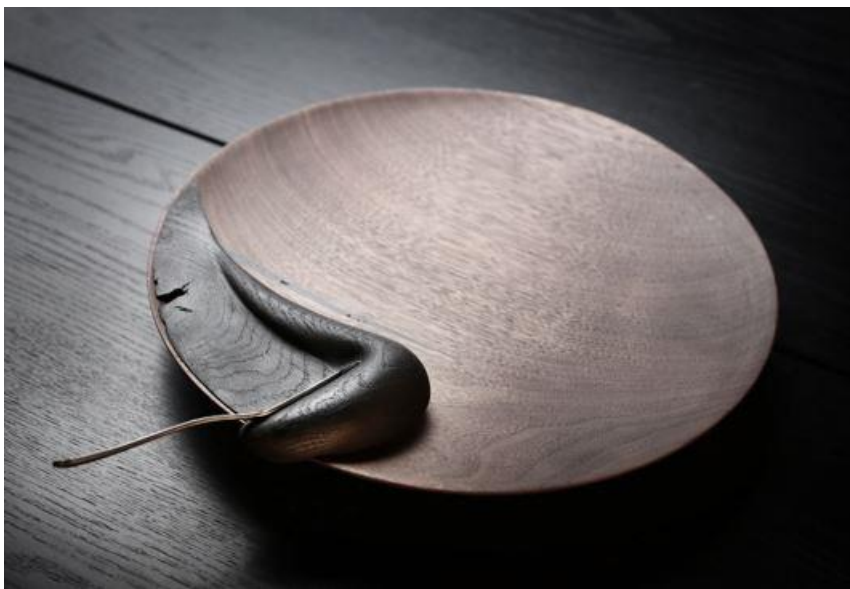
014. 누구나 마음 속 원하나

850x850x55mm,
Walnut, 2023



016. 우리는 왜 부분이며 곧 전체인가

1000x1000x120mm,
mpingo, ebony, wenge, acrylic, 2024



017. Chef. lee Centerpiece

460x460x50mm,
Walnut etc, 2024



심은하 Sim Eun Ha

NEO Art

25.04.08 ~ 25.05.11 N1, 2관